

광산구, 생활체육시설 ‘공공파크골프장’ 활성화 박차

서봉·임곡 등 2곳 직영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무료로 이용 가능 2027년까지 4곳 36홀 추가 조성 장애인 전용 구장도 하반기 목표

광주 광산구가 ‘생활체육 대세’로 떠오른 파크골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공파크골프장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 세대가 즐기는 스포츠인 파크골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서봉(36홀)·임

곡(9홀) 파크골프장 두 곳을 직영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잔디 보식 등을 위해 휴장한 두 파크골프장은 이달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광산구는 직영 전환과 함께 지난달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혜택을 늘리는 ‘파크골프장 이용구민 제강령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우선 매주 목요일을 ‘광산 파크골프하기 좋은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날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산구인 주민 누

구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서봉·임곡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광산구민을 위한 연간 이용권(20만원)도 도입했다. 연간 이용권은 1년 365일 기준 일반 이용 방식보다 약 60% 저렴하고, 구매 시 별도 발권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추가 할인이 적용돼 10만원에 1년 동안 공공파크골프장 2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연간 이용권 운영으로 구민 혜택을 강화하고, 고질적 민원으로 제기됐던 줄서기 문

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이용권 사용은 지난 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서봉파크골프장(황룡강3자전거길 77)에서 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지역민 혜택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운영하던 이용료를 광주지역, 광주 외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 증가로 급증한 시설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광산구는 시민, 파크골프 동호인 등의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27년까지 4개 파크골프장 36홀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서봉 파크골프장 내에 만드는 장애인 전용 구장(9홀)은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공공골프장이 명실상부한 시민 친화적 생활체육 거점이 되도록 다양한 제강령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지속해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파크골프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봉 기자

서구, 어르신 맞춤형 정책 ‘100세 건강시대’ 활짝

체감도 높은 정책 활기찬 노년 지원

광주 서구가 ‘100세 건강 시대’를 향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천원국시 사업부터, 치매 조기 진단 지원, 24시간 안심 돌봄 시스템, 건강 증진을 위한 슬로우 조깅 등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특화 정책을 이어나간다. ‘천원국시’는 단순한 착한 식당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서구의 대표적인 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구에서 운영중인 9개 매장에 각 22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 천원국시 매장에서는 총 198명의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어르신 공익 활동 사업에 5,343명의 어르신들의 참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역량 활용 사업에도 1,183명이 참여하고있다. 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뇌영상(CT)과 혈액 검사 등 치매 감별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재택 의료 센터를 운영해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한 공간에서 팀 기반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전국 유일의 고령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링, AI 스피커, 응급 센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AI 기반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24시 안심콜-출동-돌봄’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서구에서는 관철에 부담을 줄이면서 운동 효과는 높이는 슬로우 조깅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상무팀과 풍암팀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서구형 평생 학습 정책인 ‘세컨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강좌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바른 자세 모델 워킹’ 강좌는 60~70대 어르신 20명이 6개월 동안 바른 자세 교정부터 런웨이 걷기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세컨대 졸업식 등 실제 공개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높은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나의 인생 사진 만들기’ 강좌 역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따뜻한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제53회 어버이날 캠페이션 행사

광주 동구청장 임택은 7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패 수여, 어르신 캠페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동구 제공

남구 ‘가정의 달’ 맞아 효행 실천 행사 다채

8일 어버이날기념 으뜸효 대잔치 9일 아동 350명 놀이공원 나들이

광주 남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효행을 장려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으뜸효 남구 어버이날 큰잔치가 8일 수박들로 공영 주차장에서 열린다.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으뜸효 남구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지역 어르신들 비롯해 효자·효부 등 400여명이 참석하며, 어르신 가슴에 캠페이션 달기와 축하공연 무대를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

다. 구청 공직자들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효행 실천에 나서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100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실태를 살피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박정환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도 7일 봉선동과 진월동, 효덕동, 대촌동 지역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6명을 연달아 찾아뵙고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도 열린다. 남구지역 4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 350여명은 오는 9일 광주 패밀리랜드

에서 놀이공원 문화 체험에 나선다. 이번 체험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일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5월을 보내면서 효행 실천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마음껏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내 구청장은 경로효친 실천을 위해 지난달 29일 진월동에 거주하는 박모 할머니 덕을 방문, 1주일 뒤 100세 생일을 맞이하는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며 생일 축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최환준 기자

북구,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광주 북구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10대를 기부받아 추가 설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라벨과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 또는 캔을 투입하면 적정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 뒤 개당 10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친환경 스마트 장치이다. 특히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환

전이 가능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 유도 및 자원 순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3월 말 수퍼민썬을 포함한 두 기업에서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무인회수기 10대(단일형 1대, 복합형 9대)의 기부 의사를 전해오며 따라 지난달 29일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 물품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조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중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며, 북구 내 무인회수기는 총 19대가 운영된다. 북구는 이번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분리배출 생활화와 자원 순환 인식개선을 위해 기꺼이 무인회수기를 기부해주신 기업 관계자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서 별밤캠프 3회 운영

광주 북구는 국립광주과학관과 협업체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별밤캠프’는 과학을 기반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및 전시관 일원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의 초등학교 가족 180명이며 기수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제공될 프로그램은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3D면 활용 열쇠고리 제작 △전문가 천문교육 △야간 천체 관측 △과학관 관람 등으로 구성됐으며 1박 2일간 운영된다.

이번 캠프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1기(6월 14일~15일), 2기(6월 28일~29일), 3기(7월 19일~20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수당 15가구(60여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과학 접근성 확대를 위해 1~2기 참여자는 취약계층 가정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광주 동구는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회 무등산 인문축제’ 사전 접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전 모집 프로그램은 △편백숲 생물 다양성 탐사사 △인문 사유 정원 △시간의 숲, 무등 △의제 사생 대회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에게는 탐방, 명상,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등산 인문 축제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편백숲 생물 다양성 탐사사’는 생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무등산의 숨겨진 생물 종들을 찾아 나서는 시민 과학자 활동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주관하며, 김연경 코리아생태연구소 연구원, 박경희 전남대학교 연구원 등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탐사를 이끌 예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30명을 모집한다. ‘인문 사유 정원’ 프로그램은 무등산 중심사와 오방 수련원에서 심신 안정을 찾는 명상 프로그램과 직접 찾이를 따서 만드는 차 체험이 2회씩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화차별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무등산에 머물렀던 역사 속 인물들을 중심으

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테마형 투어 프로그램 ‘시간의 숲, 무등’은 장소 특정한 연극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전문 해설사와 춘설현을 중심으로 오방, 석야, 의제 등 무등산과 관련된 인물들의 삶을 특정형 연극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의제 사생 대회’는 의제미술관이 주관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등산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심사를 통해 총 32명의 우수 작품을 선정한 의제미술관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민 기자